

“전력·용수 늦어도 공사부터”…호남 반도체 가속페달



“호남 팍 가장 빠른 속도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9일 오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군공항 부지에서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를 함께 둘러보고 있다. /조영권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광주 군공항 첫 방문
전력·용수·교통 등 핵심 기반시설 점검
용인과 병행 건설·추가 증설 가능성 시사
투자 지연 우려 덜어…“착공 시점 곧 발표”
궂시장 “6조 재정 지원 등 전폭적 뒷받침”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광주 군공항을 찾아 초기 착공 의지를 밝힘에 따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의 병행 건설은 물론, 추가 증설 가능성을 언급해 투자 지연에 대한 우려를 덜었으며 호남을 새로운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1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9일 광노정 SK하이닉스 사장 등 경영진과 함께 광주 군공항 일대를 방문해 부지 현황과 사업 여건을 살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공식화 이후 그룹 총수가 현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회장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함께 군공항 관제탑에서 부지를 조망하고 반도체 생산시설(fab-랩)이 들어설 탄약고 이전 예정 부지 등을 확인했다. 전력과 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의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그는 현장 방문 후 “가장 빠른 속도로 최대한 짓겠다”며 “용수와 전력이 늦다고 하더라도 타이밍을 빨리 맞출 수만 있으면 먼저 공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기반시설이 완전히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가능한 공사부터 시작해 전체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용인 클러스터와 호남 클러스터의 병행 추진 가능성도 열어졌다.

최 회장은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건설 일정을 12년 앞당겼지만, 추가 생산거점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호남 팍은 용인 클러스터의 약 3분의2 규모로 계획하고 있지만, 부지와 수요가 더 확보되

면 규모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땅이 더 있고 수요가 더 있다면 이쪽이 더 커질 것도 충분히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착공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최 회장은 “시장님도 열심히 준비해주시고 국가에서도 용수와 전기 등이다 갖춰지는 것과 저희가 공사를 병행해 맞물리는 속도 등을 다시 계산하면 착공 시점이 곧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은 그동안 제기됐던 호남 투자 후순위로 우려를 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용인 클러스터에 대규모 투자가 집중되면서 호남 사업이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최 회장이 직접 병행 추진과 증설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업 실행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다만 기업의 추진 의지가 실제 착공과 양산으로 이어지려면 부지 조성과 군사시설 관련 절차, 전력·용수 공급 등 선결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전남광주특별시는 기업의 투자 일정에 맞춰 정부와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부지와 기반시설 확보를 서두를 방침이다. ▶2면에 계속

/변은진 기자

알림

바리톤 김동규 콘서트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10월24일 오후 7시 빛고을시민문화관

가곡·월드뮤직 등 다양한 레퍼토리 선배

가을이면 영감처럼 떠오르는 노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그 노래의 주인공 바리톤 김동규가 10월, 광주를 찾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오는 10월24일(토) 오후 7시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에서 바리톤 김동규 콘서트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개최합니다.

이번 무대는 가곡과 클래식은 물론 월드뮤직, 영화 OST, 뮤지컬 넘버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레퍼토리로 꾸며집니다. ‘Il Mondo’, ‘봄차녀’, ‘그리움’, ‘Stand by Me’, ‘Bella Ciao’ 등 귀에 익은 명곡들이 김동규 특유의 깊고 따뜻한 음색으로 펼쳐지며, 무대의 대미는 그의 대표곡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가 장식합니다.

테너 하세훈, 바리톤 신흥규, 소프라노 박



현진이 함께 무대에 오르고, 피아노·일렉트릭·드럼·베이스로 구성된 DK양상블이 풍성한 선율을 더합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이번 공연이 깊어가는 가을, 독자 여러분께 선물 같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6년 10월24일(토) 오후 7시

▲장소: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

▲출연: 바리톤 김동규, 테너 하세훈, 바리톤 신흥규, 소프라노 박현진, DK양상블

▲관람료: R석 10만원, S석 8만원, A석 5만원

▲예매: 예스24(9월15일 티켓 오픈)

▲문의: 광주매일신문 기획사업국 062-650-2078

내일까지 최대 50mm 비

이번 주 전남광주는 비와 함께 일시적으로 기온이 올랐다가 다시 최저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겠다.

11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2-13일 전남광주 지역에 5-50mm가량의 비가 내리고 기온이 일시적으로 오를 전망이다. 12일 전남광

주 지역 최저·최고기온 분포는 15-19도, 25-28도가 되겠으며 13일은 18-20도, 23-25도로 예보됐다.

13일 비가 그친 이후에는 기온이 낮아지겠다.

14일 최저기온은 10-15도, 최고기온은 19-23도가 예상된다. 15일 함평·곡성·해남은 최저기온이 6도까지 떨어져 가장 춥겠으며 나머지 지역 최저·최고기온 분포는 7-10도, 21-23도로 예측됐다. /서형우 기자

26.10.16^금 — 10.25^일

화순 고인돌유적지 일원

꽃 길 따라 만나는 천 년의 이야기

2026 세계문화유산

**화순고인돌
가을꽃축제**

2026 World Heritage
Hwasun Dolmen Autumn Flower Festival
A Thousand-Year Story Along the Flower Path